

뉴미디어 담론에 묻힌 반인문적 독서문화

인터넷은 지속성과 성찰성 담보 못해...

전통 독서문화의 제도적 실천과 생활화가 우선돼야

김영민 | 한일장신대 철학과 교수

신매체의 정보공간은 아직은 비성찰적이고 지속성이 없다. 새로운 매체환경을 찬양하는 소문에 덩달아 들뜨지 말고 그것이 독서문화의 활로로 이어지지 못하는 반인문적 현실에 좀더 주목해야 한다. 활자문화는 결코 녹록치 않다. 그것이 쌓아온 인문적 전통을 더욱 확실히 현실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신매체가 스며들어야 한다.

매체를 '메시지'라 하건 '마사지'라 하건, 여기에 반대할 학인(學人)은 거의 없을 듯하다. 그리고 정보양식과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주체의 재구성에 이바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두, 섬세하고 필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뉴미디어 담론의 현란한 호황 속에서 폄하되거나 실종된 '기본'에 대해서는 의외로 조용하거나 조용했다. 그 기본은, "대양(大洋)의 환경 속에서도 마실 물 한 방울이 귀하다"는 정보미래학자들의 경고와 이어진다.

'기본이 없는 사회'라는 지적은 실로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이 소박한 경구는 우리 근현대사회의 생리를 포괄적이지만 매우 적실하게 고발하기 때문이다. 기본이 갖춰지지 못한 채 부화(富華)한, 첨단(첨단)의 치장으로 현란한 모습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지만, 특히 독서환경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독서문화는 '기본이 된 사회'의 제1조건

김정근 교수의 이론처럼 "중이 도서관 경험의 탄탄한 바탕이 있고 나서야 디지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만, 독서환경과 독서문화의 기본은 부실한 채로 방치하고, 유행심리에 부박하게 얹혀 신매체 타령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일본의 1/6, 독일의 1/16 수준이며, 전체 공공도서관 1년 도서구입 예산 2백억원은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의 한 해 도서구입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최근 언론의 조사는 충격적이다. '내용의 부실을 첨단의 정보양식화로 얼버무리 수 없다'는 말은 이처럼 간단한 통계비교를 통해서도 진실임이 드러난다.

독서를 통한 계몽과 성숙의 길이 '국민운동'과 어떻게 접맥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난 6월 2일 출범식을 연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은, 최소한 정보기술만을 베끼는

데 급급할 뿐 도서관 콘텐츠개발에 무심했던 그간의 사실을 각성시키는 사회적 역할로서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하자면, 콘텐츠 개발이 지속되고, 그 환경 속에서 독서의 경험이 확산되며 깊어지는 일이야말로 '기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운동'이 "책맹사회의 '위험'을 넘어 문화사회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그 내실은 결국 이 기본에서 시작하고 또 그 기본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나 '중언주의'의 열풍에 묻어온 '(중이)책의 죽음'에 대한 과장된 제스처도 전술한 '기본'의 입장에서 좀더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니체 이후 데리다와 테일러에 이르기까지, 신의 죽음, 형이상학의 죽음, 인간의 죽음, 역사의 죽음, 그리고 책의 죽음을 떠드는 서구의 철학적 담론에 부화뇌동한 우리 지식문화계의 타율적 부박성도 우리 독서문화의 실상을 호도한 채 선부르고 비현실적인 문화이데올로기만을 복제해내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현단계 분석의 맥락에서,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독서(sustainable reading)를 생활화하는 독서인들이 너무도, 심각할 정도로 적다는 사실이 꾸준히, 다소 준열하게 지적돼야 한다. 예컨대, 도서관 현장이 고시공부 대비처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디지털 도서관'이니 '사이버 도서관'에 대한 수입담론만을 읊고 있는 태도는 관념주의, 관료주의, 그리고 기술낙관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매체론과 기술론의 팽창이 인문적(人紋的) 계몽과 성숙의 기회와 공간을 오히려 빼앗는 꼴에 단단히 주목해야 한다. 기술과 매체는, 사람의 무늬(人紋)가 섬세해지고 깊어지는 과정에 봉사하는 환경일 뿐이며, 몇몇 평자들처럼 그 존재론적 의미에 과도한 심오(深奧)를 채우려는 것은 실익이 없고 특히 우리에게

비현실적이다.

신매체와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종이책의 운명을 따지는 물음은 사뭇 정형화돼 있어 진부할 정도다. 필자가 이 문제를 접할 때마다, '공진화'(共進化)의 입장에서 "(종이)책과 만나 함께 살아온 인류의 긴 족적을 오랫동안 굽어본 역사"에 그 답변을 부탁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그 새것 콤플렉스의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매사 '긴 전망'을 하되, '짧고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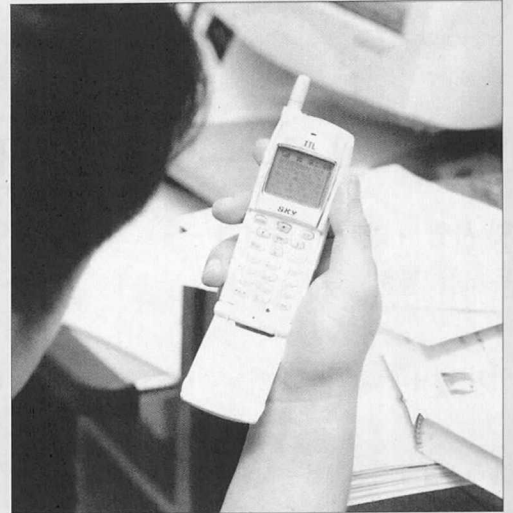
변화하는 매체환경과 함께 인터넷이나 전자책의 수요가 늘고 있고, 따라서 낡은 '종이책 인문학주의'를 여전히 고집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이른바 '번역의 근대화'를 제대로 겪어내지 못한 채 선부른 매체 세계화의 추세에 역부족으로 밀리고 있듯, 종이책에 바탕을 둔 독서환경이나 독서문화를 제대로 활성화시켜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종이책의 죽음'이나 수입된 첨단 매체론만을 들먹이는 것은 끝없는 따라잡기의 망상만을 부추길 뿐이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자책 등 신매체를 통한 독서의 경험이,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무로 만들어진 종이책의 경우, 우리의 몸과 오랫동안 조응해오면서 그 나름의 공진화적 조화를 증명해왔다. 비록 근현대의 상처와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책으로써, 책으로서, 책과 함께 이뤄진 근현대의 활자문화는 결코 녹록치 않으며, 따라서 21세기의 정보혁명마저도 '대체'가 아닌 '보완'의 관점에서 좀더 차분하고 섬세하게 접근돼야 한다.

종이와 디지털의 이분법 구도는 옳지 않아

독서가 독특한 질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인문주의자의 편벽이 아니라고 본다. 그 특징이 '필신기독'(必慎其獨)이라는 전래의 성찰공간과 생리적으로 어울린다고 주장해도, 이것을 다만 기술혁신에 둔감한 인문주의자의 고집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독서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배움을 말할 때 흔히 '진지한' 학생을 떠올리곤" 하던 관습이 변하고 이제 "우리 시대는 유머로 배우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달아나는 이론에 장단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단계 분석에 근거한 작은 실천들의 조건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신매체의 정보공간은 아직은 아무래도 비성찰적이다. 아니, 비근한 사례 속에서 반성찰의 이수라장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현실을 선도하는 이론은 숲 속의 새처럼 앞서 달아나고 현실의 지형은 그 이론이 내려앉을 수 없을 지경으로 지리멸렬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근년 기술과 문화의 상호접근이 가속화되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변화만으로 나눔과 누림과 성숙의 문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헤드의 오래된 지적처럼, 문명의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이책에 바탕을 둔 독서문화의 위기론이 떠돌지만, 신매체의 독서경험이 과연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성찰적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사진은 휴대폰에 전자책을 내려받아 읽고 있는 독자.

주요한 진보는 그 같은 진보가 일어나는 사회를 파괴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역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환경을 찬양하는 소문에 덩달아 들뜨지 말고 그것이 독서문화의 활로로 이어지지 못하는 반인문적 현실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낙관주의나 매체낙관주의에 제동을 거는 인문주의의 관심은 '보수'가 아니라 '기본'을 갖추자는 것이다. 내가 애용한 속어로 규정해보자면, 그것은 독서문화의 개발에서도 '뿌리깊은 진보'의 정신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테면, 신매체도 종이책과의 상보관계 속에서 차분한 법고창신의 역사를 이루며 실속 있는 독서환경을 만들어나갈 때라야 기술과 문화 사이의 창의적 결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이책과 신매체는 자연과 기술, 보수와 진보, 비판과 낙관, 성찰과 반성찰이라는 경직된 이분법에 의해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 사이의 스뭍과 겹침이 우리 생활 속에서 긴 호흡으로 내려왔을 때, 독서문화(文化), 곧 독서문화(敎和)의 진경(進境)이 가능해질 것이다.●